법정 국수 한사리 간질간질 생각나


前 방송인 이계진

이순을 넘긴 그가 스님의 빈자리에 크게 서운해 했다. 연륜의 상당부분이 스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일까. 스님과 교유가 깊었던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순수하다는 것이다.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솔직함은 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스님에게도 꼭 같이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 꼭 천 년 앞선 1011년. 고려는 초조대장경을 파기 시작한다. 흔히 고려대장경을 부처님 힘을 빌려 거란이나 몽골 침략을 막으려는 마음에서 팠다고 깎아내리지만, 대장경을 만들어 적을 막으려고만 했다면 굳이 인쇄경판으로 만들 까닭이 없었다. 대장경을 찍은 참 뜻은 부처님 열반 뒤 부처님 말씀을 모은 일처럼 온 나라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일군, 겨레 얼이 담긴 큰 역사다.

지난 가을. 법정 스님과 인연이야기를 들려주십사 부탁하려고 화계산(지도에 없는 관봉 선생이 지은 산 이름) 자락에 자리한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 이사 관봉 이계진 선생(65) 댁을 찾았다.

비가 개인 끝 시리도록 맑은 하늘과 맥고자를 쓴 선생 모습이 어우러져 선선하다. 관봉 선생이 법정 스님을 처음 뵌 건 20여 년 전 여름, 온 식구가 송광사 수련회에 갔을 때였다. 그 뒤 경복궁 앞 법련사에서 스님을 다시 뵈었을 때 스님은 "〈샘터〉에 쓴 글을 봤는데 글이 참 맑더군요"하고 덕담을 건넸다. 그리고 1992년 불일암에서 선생 부부는 법정 스님에게 계를 받았다. 향적(香積)과 삼매화(三昧華). 그날 스님은 내외에게 점심공양으로 국수를 비벼주셨다. 일러 '법정 국수'다.

스님은 국수를 손수 삶아 우물가로 가서 찬물에 헹군 다음 맨 국수를 한 사리씩 감아 맛을 보라고 건네주셨다. 스님은 하늘을 쳐다보며 하얀 국수 한 사리를 간질간질 목으로 넘기셨고, 우리도 스님을 따라 하늘을 쳐다보며 하얀 국수 한 사리씩을 간질간질 목으로 넘겼다.

관봉 선생 수필집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에 나오는 글이다. 나그네는 집 바깥뜰에 원시모습 그대로인 화덕에서 선생이 손수 삶아 진간장과 참기름, 김 부스러기를 버무린, 고소하고 맛깔난 법정 국수를 맛보는 영예를 얻었다. 지난 15년. 사람들이 화계산 자락 관봉 선생 댁에 들어서면서 늘 묻는 말이 있었다. "와! 몇 평이나 되요? 땅값이 얼마나 되죠?" 그동안 그걸 묻지 않은 사람이 법정 스님까지 네 분이 있었는데, 셈에 둔할뿐더러 미욱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나그네가 묻지 않은 탓에 '다섯 번째 바보'란 이름을 얻었다.

–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그리고 두어 달 남짓 지난 12월 초 다시 만난 자리. "스님을 뵙기 전부터 '많이 가지더라도 늘 갖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또 좀 모자라고 못난 구석이 있어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욕심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다 스님을 뵙고는 '내 생각이 그르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오늘도 전철을 타고 걸어왔는데, 좋은 구두가 있지만 오래된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게 참 편안해요."

돈이 있지만 티 안내고, 차가 있지만 걸으면서 행복해 하는 관봉 선생. 밟을 리(履), 지날 력(歷)을 쓰는 '이력'이란 말에 걸맞은 발자취다.

17대와 18대 국회의원 당시 30분씩 1시간, 선서할 때를 빼고는 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다는 말씀에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백제 온조왕 15년, 궁궐 지은 얘기를 적바림하면서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넘치지 않는다'고 한 대목이 떠올랐다.

서울서 살다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는 일은 선뜻 뛰어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중풍이 드셔서 아파트에선 살기 힘드셨어요. 낙향할 기회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 무렵 스님께서 〈월든〉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인이 시골생활을 꺼렸다.

"여자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못갑니다. 시골생활 3W가 있어요. 먼저 '와이프wipe'가 허락해야 하고, 둘째 '워크work', 워크는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노동력, 그 밖에 따로 할 일이 있어야 한다며 무일푼이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머지는 '워터water'. 물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으뜸이 와이프죠. 건강이 좋지 않아 시골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몰라 망설이던 집사람이 선뜻 결정 내린 데는 헬렌 니어링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그리고 장두석 씨가 쓴 자연치유 능력에 대한 책 〈민족생활의학〉이 있었어요. 그 책들을 읽고 나더니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며 마음을 냈어요."

그 때 관봉 선생이 프리랜서가 되고 두어 해쯤 지나 그야말로 잘 나갈 때였다. 내려가 있는 사이, 동료나 라이벌들은 프로그램 수주하러 다니고, 광고 찍으러 다닌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더란다. 그래도 "지금도 난 이만큼 부자인데, 가자! 내게 주어질 일이 있으면 산골이 아니라 숨어있어도 찾아올 거다. 이런 배짱으로 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갈등도 많이 했다. 그러다가 '법정 스님은 산속에서 밥그릇 하나 가지고 살고 계신데'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서울 살았으면 얼마를 더 벌었을 거라는 생각, 그건 가상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생각 속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서울 사는 시간을 줄여서 큰 병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골 가길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 모습을 법정 스님은 장하게 여겼다. 집을 짓고 한 해 남짓한 가을 녘에 스님이 오셨다. 당신이 권한 책을 읽고 실천하다니 신기하다는 생각도 하셨을 스님. 참 좋다고 잘했다고 하면서도 적잖이 걱정도 되셨는지 "살아보니까 일을 너무 하면 안 되겠더라고…. 골병이 드니 쉬엄쉬엄하고, 나무는 이렇게 가꾸고…"하면서 산골생활 노하우를 하나하나 찬찬히 일러주셨다. 그러기를 15년. 자연인 이계진 삶은 얼마 전에 펴낸 책 〈주말농부 이계진의 산촌일기〉에서 만날 수 있다.

–따뜻한 눈길, 그리고 끝없는 관심

14대 때 처음 정치를 권유 받은 관봉 선생. 당치 않은 소리 말라며 단호히 뿌리쳤다. 하지만 15대 땐 물리치기가 너무 힘들었다.

"안가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방송국, 신문사마다 찾아다니면서 '난 국회 안갑니다. 기사 내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렇게 말하곤 집에 오면 갈등이 되요. 이러다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 끝에 법정 스님을 찾아뵙고 여쭈었다. 스님은 "처사가요? 거기 가시면 차맛을 잊어버릴 거요"하고 간단없이 말씀했다. "그날 밤부터 우리 내외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법력 높은 스님 말씀 한 마디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 16대 때 스님은 "기도해봐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말씀. 선생 귀에는 그 말이 "하지 마세요"로 들렸다.

"집에 와서 또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안 나갔어요. 그 산골에, 날 데리러 이름 대면 다 알만한 톱 정치인들이 와선 밤 12시가 되도록 대답 듣겠다고 어르다가 '그럼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나면, 이튿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렇게 답한 적이 없다' 고."

매화향이 그윽하게 감도는 2003년 이른 봄 불일암. 법정 스님과 마주 앉은 관봉 선생. 조심스레 입을 뗐다. "스님. 제가 아주 유치한 사랑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스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하고 여쭈니, 스님은 "처사가요?"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이내 "선한 눈매를 가지고 기다리고…"하시면서 종이와 붓을 꺼내 "사랑은 따뜻한 눈길, 그리고 끝없는 관심!"이라고 써 주셨다.

군시절부터 오래도록 꿈꾸며 벼리던 사랑소설 〈솔베이지의 노래〉. 소리 때문에 험한 꼴을 본 중년 방송인 김시향과 불치병에 걸린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펼치는 말간 순애보. 여주인공 이름이 한효리. "효리는 본디 '소리'에요. 평생 아나운서를 했던 내 애인. 사운드(sound)죠. 소리라는 이름이 바로 와닿을 것 같지 않아서 효리라고 했어요. 말 배우는 어린애들한테 '효' 해봐 하면 '소!' 그러거든요." 주인공 이름을 소리라고 지을 만큼 소리는 선생에게 목숨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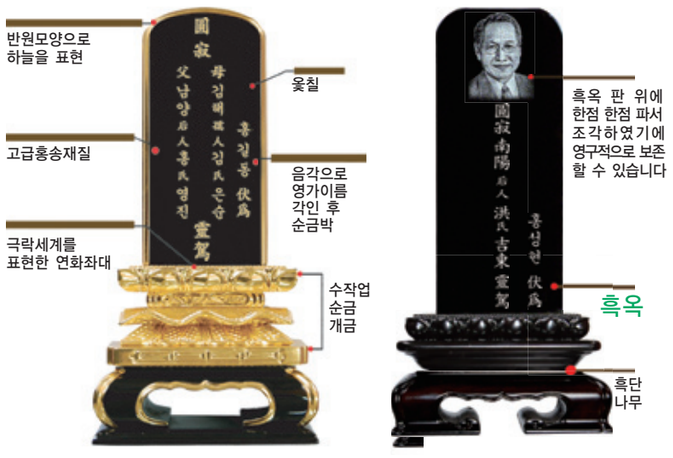
17대 때, 그토록 손사래 치던 국회의원 출마 결정을 내리고 스님을 찾아뵈었다. 스님은 "나이가 들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씀은 '소리 듣는 귀가 열렸다'는 짧지만 준엄한 인가(認可).

"명품"의 황금위패, 흑옥위패로 영단의 품격을 높여 드립니다 !!

황금영구위패는? ※디자인특허※

◈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황금위패로 영가위패단의 품격과 신도는 조상에 대한 숭모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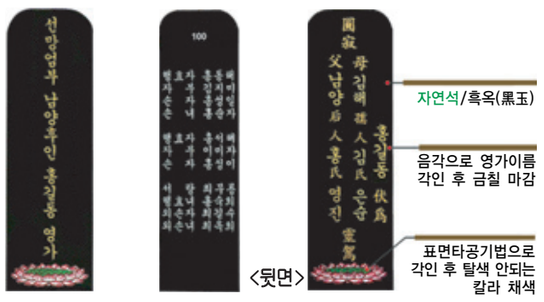

<안치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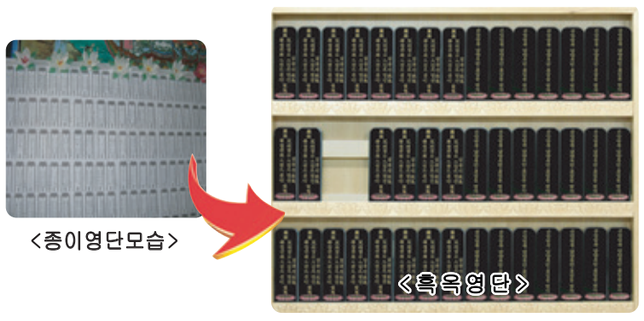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업 조각

흑옥위패단은? ※디자인특허※

◈ 자연석 고급석재로 제작하여 영단의 안정감과 품격을 높여줍니다.
◈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신도가 위패제작에 동참할 것입니다.
◈ 뒷면에 고유번호와 가족이름을 넣을 수 있어 관리가 편합니다.
◈ 좁은 공간에 많은 봉안영구위패를 장엄 할 수 있는 맞춤형 흑옥위패 단입니다.
◈ 사찰비용없이 영단 설치와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가의 문구는 각 사찰의 요구대로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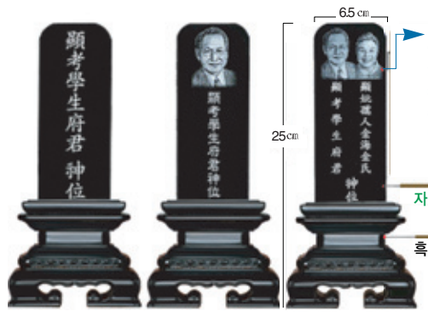


※ 전국 어디든 각 지역 사업부에서 샘플과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

흑옥 제사용 위패는? ※디자인특허※

◈ 제사 때나 명절에 지방위패에 조상님의 사진과 함께 제작한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생전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방을 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흑옥(黑玉)과 흑단 나무를 부착하여 제작하였기에 영구적으로 보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사진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작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와 함께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66-9650
(주)대양아트 FAX : 02) 921-9650
본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e-mail : dyart@daum.net